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탄력'

유적지 발굴·보존·정비·관련 자료·사료의 수립료·조사료·연구 등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대한민국 근대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주의 위상 강화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연계하는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박형배·김진욱·백영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전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정의와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계승 발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 발굴 사항이 명시됐다.

또한,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자에 대한 포상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와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전주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위상에 맞는 기념시설 조성 및 역사문화 자원화를 통해 전주의 근대 역사를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는 올 연말까지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과 농민군의 치열한 격

전이 벌어졌던 완산도서관과 관지산 등 완산공원 일대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는 공간인 역사관과 꽃동산,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들과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옥마을과 풍남문 등에서 도보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초록바위에 진입 데크를 설치하고, 초록바위 정상에는 등의자와 조형벤치 등이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전망 및 휴식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이후,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완산도서관 일부 기능 개선 및 리모델링을 바탕으로 (가칭)동학농민혁명 문화관과 민(民)의 광장 등 거점 시설이 추가 조성된다. /김민근 기자



여성·아동 안전지킴이집 지정·운영 완산서-여성아동지킴이집, 풋-SOS시스템 구축 MOU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황수)가 17일 전주시청, 전주여성아동안전지킴이집과 풋-SOS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완산서는 17일 전주시장앞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황수 전주완산경찰서장, 전기동 전주여성아동안전지킴이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지킴이집 안전강화를 위한 풋-SOS(비상벨) 설치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116곳은 여성이나 아동이 늦은 밤 귀갓길에 만약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신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성·아동 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날 설치하기로 협약한 풋-SOS

시스템은 편의점과 경찰서 종합상황실과의 핫라인으로, 범죄로 인하여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112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긴급 신고처리 접수, 신속히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상호출 방범시스템이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으며, 무동기적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체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위방범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전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경찰의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한 50대 교수 검찰송치

여제자를 성추행한 전북의 한 사립 대학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7일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수 A(52.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1월 같이 술을 마시던 제자 B씨(23.여)가 술을 많이 마시자 원룸으로 데려다 준다는 명목하게 데려가 집에서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제자가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 뿐 강제 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변항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해당 대학도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교수직위를 해제했다.

/김민근 기자

상습적 직원 금품 훔친 6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상습적으로 직원의 금품을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사무실에서 7개월간 직원의 가방을 뒤져 315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모씨(6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외출한 틈을 타 가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이씨의 범행은 매번 가방에서 금품이 사라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김민근 기자

'콜센터 여고생의 죽음을 묻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통신사 콜센터에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수연(19)양을 위한 추모문화제가 지난 17일 오후 7시 전주 대우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 곳은 홍양이 다니던 회사가 들어선 곳이다.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관으로 열린 추모제에는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안호영·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홍 양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된 추모제는 전북도립국악원의 살풀이춤, 추모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발언에 나선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은 "감정노동과 노동 강

요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비극적인 일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홍 양의 아버지도 함께했다. 또 지난 2014년 10월 홍 양과 똑 같은 선택을 했던 이문수씨의 아버지도 참석했다.

홍 양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보낸 슬픔에 정상적인 생활은 꿈도 못 꾸고 있다"며 "지금도 딸이 '아빠'라며 달려올 것 같다"며 울먹였다.

이어 "딸을 지켜주지 못한 못한 아버지로서 부끄럽다"며 "우리 딸처럼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지

전주 대우빌딩 앞에서 故 홍수연양 추모문화제

25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회사로부터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면서 "제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외쳤다.

홍 양은 지난 1월 23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저수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홍 양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전주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엘비휴넷)에서 근무했다.

한편,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엘비휴넷)는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엘비휴넷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선 상태다. /김민근 기자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대상서 제외돼야"

국내 환경단체 주장 "시 바이러스 잠복기 지나서 판단해야"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근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동물복지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한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8km 내 17개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닭 35만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지시했다.

살처분 대상에는 친환경 사료 사용과 청결한 농장 관리로 동물복지농장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

들은 최근 AI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과정을 설명하며 "참사랑 농장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동물복지농장인데다 AI 음성 판정까지 받았다"며 "AI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할 닭들을 살처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참사랑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AI 바이러스 잠복기인 3주가 지나는 오는 28일까지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근 기자

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한 선장 등 6명 입건

화물차량을 이용해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낚시어선 선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채광철)는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해 운반과 주유를 한 낚시어선 선장 A씨(62세, 군산)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톤 화물차량에 이동용 보관용기(플라스틱 재질)를 설치해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말뚝(20L)으로 200리터를 공급받아 부두까지 운반하여 호스를 이용해 직접 주유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채우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와 취급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 A씨는 낚시어선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다른 어선에 공

급받은 면세유 약 7만5100리터를 낚시어선 B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서 박상필 수사계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 없이 선박에 연료를 주유할 경우 폭발사고와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험물의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된 용도와 다르게 면세유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군산=윤정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